

나주 혁신도시 원주민 임대주택 말썽

26세대 중 4세대만 입주... 결국 일반분양으로 채워

값싼 자재 사용 40억 건축비 거품 논란도

나주시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영세 원주민의 주거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했으나 입주 희망자가 소수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 건축비는 턱없이 비싼 반면 당초 계획과 달리 값싼 건축 자재를 사용해 건축비 거품 논란속에 부실시공의혹도 받고 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금천면 일대에 혁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영세 원주민들을 위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합해 총 4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4월 다세대주택 26세대를 완공했다.

1층 규모 7개동으로 구성된 임대주택은 13.6평형이 8세대, 17평형이 18세대로 건축비로만 평당 425만원 가량이 소요됐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임대주택을 짓은 곳은 나주시가 유일하다. 나주시는 조례까지 제정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저렴하게 임대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주민을 모집한 결과 정작 영세 원주민은 4세대에 불과하고 희망자가 없어 모집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했지만 18세대가 추가로 입주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완공 4개월이 지나도록 4세대나 미입주 상태가 된 것은 입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폴속으로 추진한데다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3.6평형이 5만850원, 17평형이 6만8360원으로 전기료 등 공과금까지 합할 경우 1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김모(나주시 금천면)씨는 “관내 아파트를 임대했을 경우 20억원 정도면 영세 원주민의 주거문제를 깔끔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 건설은 향후 지속적으로 시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벌써부터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비 논란 거품도 제기되고 있다. 설계 시방서에 명시된 내장재가 규격과 가격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내장재 가운데 가격이 가장 저렴한 자재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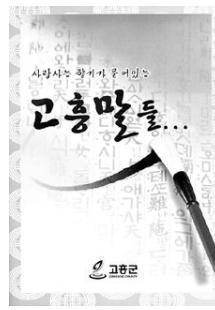
설계 시방서에 185만원으로 책정된 현관문이 시중에서 절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90여만원짜리 제품으로 대체됐고 싱크대도 시방서에는 130여만원이 책정돼 있으나 70여만원 상당의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불가 정보지에 게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며 “평당 건축비가 400여만원 가량 밖에 책정되지 않아 좋은 내장재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건축비 거품 논란을 일축했다.

/동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고흥군 공무원들

사투리 모음집 발간



고흥군청 공무원들이 6개월간 발음을 팔아 정겨운 지역의 아름다운 말을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화제의 책은 이른바 고흥말 모음집인 ‘사람사는 향기가 묻어있는 고흥말들’(하나로 기획·제작), 고흥군 평생학습사업소 박현정소장과 직원들이 만든 이 책에는 ‘핑(빨리 와)’, ‘까끄막(비탈)’ 등 고흥 주민들이 아직도 정겹게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 등 6400여 낱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어학자나 향토문화가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발음을 팔아 정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순천에 특급호텔 10월 문연다

지상 18층 규모 ‘에코그라드’... 국제행사 개최 가능

순천에 대규모 특급호텔인 ‘에코그라드’(조감도)가 10월 문을 연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에 개관하는 에코그라드호텔은 부지면적 22,720m²에 지하 3층, 지상 18층(93m) 규모로 1,300여명이 임대 가능한 초대형 그랜드볼룸 등을 갖춰 대형 연회나 세미나를 비롯한 국제행사를 소화 할 수 있다.

최상층의 국빈급 인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급룸인 프레지던셜위트룸을 갖췄으며 호남 최초의 호텔명품 샐, 최고급 상설뷔페와 3개층을 상류 소셜클럽인 ‘프리빌리지클럽’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호텔이 개관하면 특급호텔 부재로 국제행사나 대형행사 개최가 어려웠던 순천의 지역적 한계를 해결해 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제의 책은 이른바 고흥말 모음집인 ‘사람사는 향기가 묻어있는 고흥말들’(하나로 기획·제작), 고흥군 평생학습사업소 박현정소장과 직원들이 만든 이 책에는 ‘핑(빨리 와)’, ‘까끄막(비탈)’ 등 고흥 주민들이 아직도 정겹게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 등 6400여 낱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어학자나 향토문화가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발음을 팔아 정리했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2월 광양만 해역 및 인접 육지구역을 특별관리해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해양부는 광양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조직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운영 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2월 광양만 해역 및 인접 육지구역을 특별관리해

역으로 지정해 해양환경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 민간단체, 지자체, 기업체, 학계 등이 참여한 민관산학협의회를 조직했다.

전남대 환경해양학전공 이규형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단체 위원 11명, 행정기관 위원 12명, 산업체 위원 8명, 학계 위원 7명 등 총 39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과 함께 광양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이번 훈령제정으로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플러스부동산

년 수익률 10% 이상 책임보장

1억직접투자 시
년 1000만원 이상 소득 가능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 영업 계획 작성!
전국·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타등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은 투자 가치가 없다

T. 062) 226-3377
FAX. 228-3369
(부산·울산·경주·대구·광주·전남·제주)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형 가능

■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⑤ 삼무신도심 중심인 백화점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T. 081-5668 H.011-801-536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빠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심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02) 221-1772 H.011-802-2522
(광주광역시 남구 풍정동 대우상가 1층)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 이상 입주률 80% 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동 / 로얄층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 할인금액 6천만

▣ 주변 소핑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써
투자기지 상승 기대 최근 대림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동광 표장을 수상하였으며, 입주민들
의 친선을 받고 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탑공인중개사 ◎ 대림124동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과거로의 시간 여행

관광객들이 24일 순천 낙안읍성 돌담길을 걷고 있다. 일상을 잊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순천 낙안읍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양 세풍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

3606억 규모...산업은행 등 4개사 참여

전남도가 3000억원 규모의 광양 세풍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24일 오후 전남도청 서

재필실에서 ‘광양 세풍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총 3606억원 규모의 이번 투자협약

에는 전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 등 3개 기관과 KCC 건설, 쭈립시티, 대선건설(주), 한국산업은행 등 4개사가 참여했다.

세풍단지는 광양시 광양 세풍리 일원 2.38km²부지에 세워지며 오는 2015년까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갖춰 1차금속, 조립금속, 기술정보, 식품산업 관련 업체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 지정

복장유물 35점도...내일까지 성보박물관 전시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보물 지정을 예고한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사진) 및 복장유물’이 보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보물 1660호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은 송광사 관음전에 있는 불상과 그 복장 유물 35점으로 17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조각승 해희(慧熙)와 금문(金文)의 작품이다.

복장 유물 중 하나인 복원문에는 이 불상이 1662년 청나라에 불모로 잡혀갔다가 조선에 돌아와 속살된 것으로 알려진 소현세자의 아들 경안군 내외가 오래 살기를 기원해 만들었다는 제작 배경이

적혀 있다.
조성 배경이 갖는 역사적 의미
도 크고 불상 자체의 완성도도 높은 데다, 웃가지들이 복장 유물은 당시의 직물, 염색, 민속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됐다.